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0월 24일(주일) 제1365호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에 열린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당신도 당신 가족도’

27~28일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 참가자 및 봉사자 모집 온누리교회 및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이원생중계

2년 만에 열리는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드디어 막 오른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는 ‘당신도 당신 가족도’를 주제로 10월 28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야마가타 야마긴현민회에서 진행된다. 집회실황은 온누리교회 및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 이원생중계된다.

포문은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교회부흥 세미나가 연다. 박종길 목사, 김경훈 디렉터(구글 코리아), 김하중 장로가 야마긴현민회

스튜디오에서 강의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야마긴현민회 대홀에서 가스펠나이트 집회가 이어진다. 야마가타 출신 크리스천 음악가들과 크리스천들이 준비하는 러브소나타 전야제다. 설교는 사토 아키라 목사(후쿠시마 제일성서침례교회)가 한다.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는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일본어로만).

10월 28일 오전 11시 팔레스그란텔 호텔에서는 리더십포럼이 개최된다. 대망의 러브소

나타 야마가타 집회는 오후 7시 야마긴현민회 대홀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원생중계로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소프라노 김영미,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 ABC-도쿄 발레단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 집회는 한국어 통역이 지원된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성도들은 10월 25일(월)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 예약 시스템’이나 앱 ‘온누리교회 예배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봉사자도 모집한다. 10월 28일 오후 3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중보기도와 러브소나타 집회

에서 사용할 선물(종이비행기, 야광봉, 마스크, 전단지 등)을 포함한다. 전화(02-570-7415)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야마가타현에는 80개 교회가 있다. 야마가타현 요네자와시에 있는 ‘야마하라 키리시탄 순교 유적’은 일본 유수의 크리스천 순교 성지이다. 1629년 1월 12일 53명의 크리스천이 눈보라 속에서 처형되었다.

이정환 목사(러브소나타 담당)는 “그동안 러브소나타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해주시는 것처럼 러브소나타 야마가타에도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관련기사 13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팬데믹을 이기는 힘’

2021 온누리 회복축제 11월 17~19일 서빙고 본당, 온라인

2021 온누리 회복축제가 ‘팬데믹을 이기는 힘’을 주제로 막 오른다. 11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2021 온누리 회복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한 감정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장(場)이다. 스스로 불안한 감정과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이다.

11월 17일 이재훈 담임목사의 오프닝 메시지, 박성심 사모(미국 심리치료사), 박상미 소장(더공감마음학교 대표), 18일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오원웅 박사(마음공장 심리치료 연구원

장), 19일 남윤영 박사(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회복의 소그룹과 토크쇼도 이어진다. 17일과 18일 소그룹리더와 함께하는 ‘회복의 소그룹1, 2’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19일에는 토크쇼(강사와의 대담)가 있다. 간증과 특순도 풍성하다. 구인유 작가(대화식 말씀기도) 저자,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손인경 교수(바이올리니스트)와 사랑 챔버,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스킷드라마 특순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1 온누리 회복축제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1차 마감 11월 7일, 2차 마감 14일). 회비는 2만 원. 10인 이상 단체로 등록하면 1만 원이다. 탁아 서비스(36개월~초등3년)가 제공된다.

문의: 02-3215-3532, 010-9578-9538

10월 31일까지 예배당 예배 인원 확대

홈페이지와 앱에서 예배 예약 필수

온누리교회가 10월 31일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종교시설 방역 지침 개선’에 따라 예배당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이나 숙박,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온누리교회는 전체 수용인원의 10%(접종 완료자라면 구성하면 20%까지 가능) 기준으로 예배당 예배를 드린다. 새벽기도회, 토요주일예배, 일요일예배, 주중예배에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참석할 수 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 예약 시스템과 앱을 활용해서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함께라 더 의미 있는 ‘생명을 위한 기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 만난 사람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함께 모여 기도한 강남B공동체 성도들(사진 왼쪽)과 고봉익, 성정은 성도(분당B공동체) 가정(사진 오른쪽).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하 생명 기도 캠페인)이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길 인근에서 10월 31일(주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10월 16일(토) 생명 기도 캠페인 현장을 찾았다. 갑자기 푹 떨어진 기온과 매섭게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 ‘날씨가 추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스쳤는데 기우였다. 패딩을 입고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둘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귀한 자리에서 공동체 식구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만났다.

강남B공동체 허순창 권사, 최정은 집사, 길은경 집사는 시간을 맞춰 기도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다. 프로라이프와 생명 기도 캠페

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강남B공동체 성도들은 생명 기도 캠페인 오후 4시 시간대를 맡아 15분씩 돌아가며 기도했다.

허순창 권사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피켓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대하는 소중함이 없었던 것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태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최정은 집사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소중하게 존중받으며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나중에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낳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

니다. 자신의 자유와 인생이 중요하고 소중한 만큼 태아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은경 집사는 태아와 산모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태아를 지키는 산모를 위한 기도와 지원, 관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환경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봉익, 성정은 성도(분당B공동체)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생명 기도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에 참여하기 전부터 낙태 관련 영화와 자료를 찾아보면서 함께 공부했다. 그 래서인지 어린 자녀들도 기도 봉사에 참여하는 자세가 남달랐다. 고봉익, 성정은 성도

가정은 오후 5시부터 온 가족이 함께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다. 고봉익 성도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생명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생명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정은 성도는 생명을 지켜낸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저희는 입양가정이기에 이번 생명 기도 캠페인이 더욱 특별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끝까지 아이의 생명을 지켜준 생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모든 생물은 태어나야 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휘찬 학생(양재 파워웨이브, 15살)은 작은 기도들이 더 많이 모여지기를 소망했다.

“생명 기도 캠페인 현장에 나오기 전부터 부모님께서 생명 기도 캠페인의 의미와 필요성을 많이 가르쳐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작은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또래들도 생명 기도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은 기도의 손길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을 위한 소중한 한마디

• 오전에 잠깐 봉사했지만 생명의 소중함, 낙태 반대 이유를 체계적으로 알려야 함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 무명

•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소중한 생명들에 대해 깊게 묵상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 이수정

• 천연기념물 훼손자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태아 낙태는 가능 이것은 잘못된 사고 아닌가요? / 한영준

• 오늘 3~4시 사이에 참여했는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알려지길 바라며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고 무사히 잉태되어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김유지

•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체계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스스로도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 소희

• 생명을 위한 기도회와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김상윤

• 많은 사람들이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는 연트럴파크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전파되고 있는 ‘생명을 위한 기도’! 단 하나의 작은 생명도 버림받지 않게 되는 그날을 밝힐 등잔의 기름을 조금이나마 보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한동욱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시대 사람들의 사상도 아니요, 어느 지혜자의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복음은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요, 그분에게 직접 배운 것이요, 그분으로부터 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듣는 소식들은 누군가 말한 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반박하는 어떤 사상의 흐름 속 지류입니다. 흘러가는 근원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많은 철학과 사상에 기초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생각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은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어떤 시대와 문화에 전해져도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한 시대만 지나면 변질됩니다. 한 나라와 대륙만 거쳐도 변질됩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더해지고, 그 생각을 왜곡해서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수많은 도전과 공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은 바울

의 서신서들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베드로서나 요한 서신을 통해서도 복음을 깨닫는 구절이 있지만, 복음을 전체적, 종합적, 체계적,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기에 타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수학으로 증명된 법칙에는 일체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1+1=2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구약의 율법에 익숙해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강렬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체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계시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배타적이거나 교만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 바로 보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갈라디아교회에 나타난 모습 이면에는 유대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더해서 행위로서 믿음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 나타난 때가 중세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직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와 선행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면죄부를 만들고, 연옥이라는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왜곡된 교회의 암흑시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중세 교회가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읽었다더라면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이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

는 율법주의자들이 중세 교회를 장악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스스로 만든 법칙, 규칙, 절차 등을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상이 있었었습니다.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소위 영지주의입니다. 육을 악하다고 여기고, 영적인 지식을 선하다고 여기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교회가 받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며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항하며 요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에 허덕일 때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신 측면만 복음이라고 전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희생을 간과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변영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요술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복음 또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은 예수님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기득권에 저항하며 사회 정치 혁명을 이룬 혁명가로 채색해서 세상의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사회 계층에 변화를 이루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해서 사회 혁명을 이루는 것으로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을 사회 이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요술 방망이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헬라 사상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주의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들이 한국 기독교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헬라이원론주의, 계급혁명적인 사회주의,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부를 가져다주는 변영주의 등에 복음이 오염되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순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순수한 복음으로 믿음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시대의 사상과 흐름에 휩쓸립니다.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왜곡된 사상은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기능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완전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등 피조물들을 인간의 통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심지어 진화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니다. 구약은 덜 발전한 책이고, 신약은 더 발전한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진화된 더 성숙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마저 진화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과정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속화의 거센 물결, 인본주의, 유물론, 진화론 등으로 사상은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세상을 봐야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이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회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후 행적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복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확신을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회심 이전에 박해자였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지남날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요, 복음의 훼방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자신 같은 박해자를 변화시켜서 증거자로 바꾸는 복음이야말로 사람이 만들어 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상이 그 사상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을 증거자로 바꿨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바리새인보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은 히브리적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필요에 따라 유대식 발음으로는 사울, 헬라식 발음으로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테반이 순교하게 만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14면에 계속>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조직폭력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김성광 성도’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했다. 조직폭력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한 김성광 성도 말이다. 그런 그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성광 성도는 한때 온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조직폭력단 서방파 일원이었다. 그것도 서방파 보스 김태춘과 어린 시절부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함께한 두목급 인사였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고 있다.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감동적인 김성광 성도의 간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조직폭력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김성광 성도.

국가가 조직폭력단과 전쟁을 펼치던 시기가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을 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바로 그때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조직폭력배 소탕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1년 동안 조직폭력배 1,923명을 검거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주시하던 주요 조직들이 있다. 서방파, 양은이파, 오비파 등이다. 김성광 성도는 서방파 보스 김태춘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두목급 인사였다.

“조직폭력배 이름은 검경이 지어주는데 서방파라는 명칭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서방 일대에서 뭉친 조직폭력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서방 일대에서 김태춘과 함께 자랐습니다. 거칠게 자랐고, 10대부터 교도소에 두어 번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주목을 받은 게 1976년 신민당 각목사 때 때입니다.”

1976년 5월 신민당은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철승계와 김영삼계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이철승 의원이 김태춘에게 사주해서 신민당사를 공격해 당의 직인을 탈취했다. 그 이후 전당대회에서 조직폭력배끼리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김성광 성도는 김영삼계 의원들의 사주를 받고 있었다. 두 조직폭력배가 패싸움을 벌였고 김성광 성도와 김태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조직폭력배가 되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고 물었더니 김성광 성도가 한참을 망설였다.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디스코텍이나 술집 운영에 참여해서 수익을 나누고 보호비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호텔 파친코가 돈이 되겠다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구속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김성광 성도는 홀리데이호텔 파친코 경영권 사건으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는 더 이상 조직폭력배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김성광 성도가 조직폭력배에서 손을 튼 것은 아들 때문이다. 1988년경 국내 조직폭력배들이 일본 야쿠자들과 교류한 것이 적발돼 주요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때 김성광 성도의 신상정보가 주요일간지와 방송에 알려졌다.

“아들이 그 방송을 보고 방향을 했습니다. 아빠가 조직폭력배였더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조직폭력배도 자식은 소중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는 삶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손을 털고 몇 년 동안 아들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모함과 위기 그리고 만난 하나님

김성광 성도가 교회에 발을 들인 것은 2006년이다. 당시 김성광 성도는 동업자의 모함으로 큰돈을 잃고 실의에 빠진 상태였다.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사람이 모함을 당했다면 우습겠지만 정말 된통 당했습니다. 후배가 아파트개발 시행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파친코를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었기에 10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끼리 다투느라 사업 진행이 안 돼서 한 동업자에게 지분을 사겠다고 제안했더니 그길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검경이 주목하는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직폭력배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 집에서 술로 밤을 지새우는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잠이 안 오면 새벽에 교회라도 가라는 조언이 생 각나 집 근처에 있는 양재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에 갔다.

“새벽기도회를 드리는데 집에 온 것 같이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40일 새벽기도회’를 하더군요. 고민도 없이 매일 새벽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과거와 인연도 다 끊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지난 삶을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성광 성도는 혹여나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회와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묵묵하게 섬기기를 벌써 15년째다.

“교회 등록하면서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일대일제자양육 장소를 섬기는 스태프를 해달라고 권면하셔서 7년 동안 주일마다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간식과 음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예수제자학교(JDS)를 들어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제자학교가 너무 좋아

서 스태프로 6년을 섬겼습니다. 주중에 두 번, 주일에 한 번 모임을 하는데 교회에 자주 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순예배에서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보고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김성광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된 이가 있다. 바로 그의 아들이다.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따라 온누리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감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호수아공동체를 열심히 다녔더니 믿는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못난 아비라 아들에게 상처만 남기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신앙을 남겨 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김성광 성도 정도의 인사라면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일종의 전관예우로 후배들이 주는 생활비와 용돈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성광 성도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쪽 세상에 발을 걸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생활비로 쓰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가고 있지만 하나도 아쉽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게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여러 감정이 듭니다. 예수제자학교를 섬길 때 선교사로 떠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은 섬기고 싶다는 약속입니다. 서울 근교에 은퇴 선교사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면서도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정말 송구합니다.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혹자는 ‘잘나가던 조직폭력배가 느지막이 예수 믿고 마음 편하게 산다’고 불편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크리스천들은 누구든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도전합시다! 나와 지구를 위한 ‘쓰담달리기’
(쓰레기 담으면서 달리기)

누군가 버린 양심을 줍는 사람들

환경을 지키고, 건강도 챙기는 동네 한 바퀴!

가을바람이 좋다. 겉옷 하나 챙겨 밖으로 나가자. 손에 쓰레기봉투와 장갑을 들고 나가면 더 좋겠다. 누군가 버린 양심을 줍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걷거나 뛰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유행이다. ‘쓰담달리기(쓰레기 담으면서 달리기)’라고 한다. 쓰담달리기는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거양득이다. 우리 함께 이 좋은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대로는 안 되겠어!”

계속 늘어나는 몸무게 탓에 시작된 동네 한 바퀴였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운동이 환경까지 지키는 착한 습관이 될 줄 정말 몰랐다. 다 이어트를 결심한 그날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집을 나섰다. 미리 정해둔 산책로로 가려면 변화가를 지나야 하는데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다. 매캐한 담배 냄새 때문이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발밑에 떨어져 있는 수북한 담배꽂초도 보기 싫었다. 문제는 변화가뿐만이 아니었다. 산책로로 가는 내내 담배꽂초가 수두룩했다. 다음날은 다른 산책로를 골랐다. 길 옆에 수풀이 있고 땅이 평평해서 산책하기 좋은 도로였다. 담배 피우는 사람과 길가에 떨어진 담배꽂초는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수풀 사이사이 버려진 음료 캔, 과자봉지, 비닐봉지 등이 눈에 들어왔다. 산책로를 걷는 한 시간 내내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었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얼핏 보았던 ‘쓰담달리기’가 떠올랐다. 이왕 걷는 김에 기자도 쓰담달리기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진짜 좋은 환경 운동 일반 조깅의 1.2배 운동 효과

‘쓰담달리기’는 걷고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다.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북유럽 운동 문화다.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플로깅’ (plogging; 스웨덴어 ‘plocka up(이삭을 줍다)’과 영어 ‘jogging(달리기)’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로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2019년 11월 국립국어원에서 외래어를 대체할 우리말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했다. ‘쓰레기를 담으면서 달린다’는 뜻과 참여자들에게 ‘쓰담쓰담(손으로 살살 쓸어 어루만진다)’하면서 격려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쓰담달리기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공원이나 산, 해변, 강, 길거리 등 어디서든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가방과 장갑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걷거나 뛰다가 잠시 멈춰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주우면 된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운동 효과가 발생한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대표적인 근력운동인 스쿼트나 런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기자가 ‘쓰담달리기(쓰레기 담으면서 달리기)’를 하며 주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

조깅의 1.2배 효과를 볼 수 있다. 조깅은 시간당 470kcal를 소비하는데 쓰담달리기는 576kcal나 소비된다. 환경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기자도 쓰담달리기에 참여한 한 달 동안 2kg를 감량했다.

이 좋은 환경운동에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쓰담달리기, 플로깅, 줍깅, 쓰줍, 비치코밍(해변(beach)을 빗질(combining)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10만 개 가까운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다. 쓰담달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기도 볼 수 있다. “쓰레기봉투가 가득 차는 날은 뿌듯하다”, “이젠 쓰레기를 주우려고 달린다”,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쓰레기봉투를 챙기는 게 습관이 됐다”, “플로깅을 하면서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다” 등 생생한 경험담이 가득하다.

쓰담달리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기자가 쓰담달리기를 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처음에는 쓰레기봉투를 들고 장갑을 끼고 걷는 일이 어색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그런 기자의 모습을 사람들도 어색하게 쳐다봤다. 하루 이를 시간이 지나면서 용기가 조금 생겼다. 쓰레

기가 보이는 족족 주워 담았다. 길을 지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길이 깨끗해져서 보기 좋네. 고마워요~”라고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고 가셨다. 또 하루는 앞에서 걸어오시던 아저씨 한 분이 길에 떨어진 과자봉지를 주워 기자가 들고 있는 쓰레기봉투에 넣고 가셨다.

최근에는 경찰관 한 분이 말을 붙이셨다. 쓰레기를 주우며 걸어가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왔다. 쓰담달리기에 대해 설명한 다음 크리스천인 것과 온누리신문 기자인 것을 밝히고 잠시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승일 경위(관악경찰서 남현파출소)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환경운동에 더 많이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저는 쓰담달리기라는 챌린지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청년을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도전이 됩니다. 이런 게 크리스천들의 진짜 선한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환경운동을 교회와 같은 큰 종교나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웃음).”

쓰담달리기 방법과 주의사항

산책을 마쳤을 때 손에 들린 쓰레기봉투가 가득 차 있으면 ‘오늘도 열심히 주워 담았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

로는 봉투가 가득 찼 만큼 길에 쓰레기가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유독 쓰레기가 많은 어느 날은 ‘나 혼자 쓰레기를 줍는다고 과연 티가 날까? 세상이 달라질까?’라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걸어온 길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길 건너편 두 갈래로 나뉘는 또 하나의 길은 어떻게 몰라도 적어도 내가 걸어온 이 길만큼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담달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길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한 명씩만 생겨도 지구가 금세 깨끗해지지 않을까 희망찬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쓰담달리기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방법과 주의사항을 전수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를 줍기 전에 버리지 않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무심코 버리는 껌종이, 사탕봉지, 음료수 캔, 컵흄, 과자봉지 등이 환경을 파괴하고 동네를 더럽히는 주범이다. 줍는 것보다 버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 또는 마음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하는 게 좋다. 인터넷 소통이 활발한 요즘은 지역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도 쉽게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같은 공동체, 순원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셋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펫 플로깅(Pet Plogging)’을 추천한다. 펫 플로깅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동시에 쓰레기도 줍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넷째,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횡단보도나 갓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울 때는 주위를 먼저 살펴야 한다. 너무 위험한 곳에 떨어진 쓰레기라면 아쉽지만 지나치고, 안전한 곳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 좋다.

다섯째, 쓰담달리기를 한 다음 분리수거는 필수다. 챙겨 온 쓰레기봉투가 다 채워지면 가까운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한다. 여건이 마땅치 않다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도 좋다.

‘이슈’ 에서 ‘대상’ 으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실재감 높이는 방법



한건수 교수
(수원온누리교회,
국민대 겸임교수)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꾼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는 비대면 시대에 적응하며 기존의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위드 코로나의 미

리 보기를 학교와 일터에서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 이른 아침 마스크를 쓴 채 학교가는 학생들과 재택근무에서 다시금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하나의 예(例)일 것이다.

필자가 진행하는 교육도 10개 중에서 여덟은 온라인(Zoom)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대면 교육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마도 함께 만나 소통하고 싶은 ‘실재감’에 대한 욕구가 일상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실재감’의 사전적 의미는 ‘그려진 물건의 실물인 듯한 느낌’이다. 실재감은 보이는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경험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리적 공간에 있어도 상대방을 느끼는 실재감이 너무나도 다르긴 하지만, 비대면보다는 직접 만났을 때(대면) 생생한 소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끔씩 스마트폰 앱에서 코로나19 발발 이전 사진을 본다. 그럴 때면 바빠 가던 길을 멈춘 사람의 발걸음처럼 서 있는 현재의 위치가 어딘인지 새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나의 스마트폰에 있는 2년 전 오늘의 사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즐겁게 대화하는 교육 현장이다. 그 사진을 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지금의 교육 현장은 어떨까? 때때로 비대면 카메라에 비친 모습에서는 따뜻함과 사뭇 다른 무표정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는 과거의 생생했던 실재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비대면 일상이 마냥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도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 비대면 일상에 적응하면서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

소통 그리고 공감

실재감을 느끼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소통과 공감’이다. 오프라인(대면)에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소통과 공감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상대방을 그대로 보면서 대화의 내용 외에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정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재감은 온라인(비대면)이든 오프라인(대면)이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UCLA 교수였던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은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서 언어적 요소인 말의 내용이 7%이고, 나머지 93%는 표정, 목소리, 보디랭귀지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를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만큼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파악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온라인(비대면)에서는 어떨까? 온라인 소통에서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상대방의 비언어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 카메라의 각도, 거리, 해상도 등에 따라 비언어적 요소가 다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카메라를 켜 때 가능하다. 만약 카메라를 끄는 경우에는 소통에 있어서 말의 내용(7%)과 청각적 요소인 발음, 억양, 톤만으로(38%) 상대를 이해해야 하고, 시각적 요소인 용모와 표정, 제스처에서 찾을 수 있는 55%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

한 기업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다. 필자가 2시간 동안 특강을 진행하고 참가자는 온라인에서 채팅을 통한 참여만 가능한 환경이었다. 나름대로 7~8차까지 특강을 열심히 진행했다. 그런데 특강을 진행하면 할수록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들었다. 평소 나의 강의에 대한 지론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참가자와 함께가는 여행’이었는데, 그때의 강의는 텍스트(7%)만으로 참가자와 함께하고 있기에 실재감을 느끼기에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다.

종종 차세대 예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예배드리고 온라인(Zoom)으로 소그룹 모임을 해서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만약 학생들이 매주 카메라를 끈 상태로 소

그룹 모임을 한다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 물론 참여해 주는 것에 감사를 느끼는 훌륭한 선생님도 계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한다는 생각보다 혼자 벽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생각에 무기력을 느낄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지속될수록 온라인에서의 소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눈을 마주 보고, 고개는 끄덕이고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실재감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일까? 필자는 코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할 때 공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 행동을 연습시킨다.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암기하기, 둘째, 눈을 마주 보고 고개는 끄덕이기, 셋째, 암기한 것을 요약해서 말해주기다.

필자가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부분은 2번 ‘눈을 마주 보고 고개는 끄덕이기’이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고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필자가 어느 비대면 교육에서 어떤 여성이 카메라를 3분 동안 조용한 음악과 함께 쳐다보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참가자들에게 영상 속 여성의 눈을 마주 보라고 요청했다. 영상 속 여성의 눈을 바라본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여성의 표정을 따라 하게 된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여성이 사랑스러워 보인다.”, “여성의 눈에 슬픔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이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듯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자각의 기회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준다. 이것이 비록 비대면일지라도 함께함을 느낄 수 있고, 실재감을 느끼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타트 펍 박사는 소통과 공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잘 듣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놓인 사회적 처지가 어떠한가, 내가 상대방이나 혹은 상대가 말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일시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거나 져혀놓는 훈련이다... 참으로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만이 대상이 되어 그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과 공감의 행위이다. 이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러한 에너지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사람들을 피해 정오 무렵에 우물가에 온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며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다. 여인은 물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셨다.

예수님을 향해 큰소리로 외치는 눈먼 바디매오를 향해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셨다. 사람들은 소경의 외침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소경 바디매오의 영혼을 바라보았다.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병 고침의 행위를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셨다.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인파 속에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영혼을 향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한 영혼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가? 대상이 아닌 이슈와 그에 대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재감은 온라인(비대면)이든 오프라인(대면)이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본질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이슈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대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건강관리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먹던 영양제도 먹고,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건강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일상이 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가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날마다 영적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요 4:20).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바뀐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해야 한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요 4:21, 24).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나의 예배 현주소’를 점검해 보자. ‘이 산’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와 분위기, 전통과 형식 같은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할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영적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사모하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순예배가 어색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이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에 드리던 예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면서 경건 생활 전반이 무너져내리면서 총체적인 신앙의 위기를 맞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라면 영상이라는 매체의 이질감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의 준비성에 대해 묵상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에는 항상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시편에는 성전에 오르며 부르

는 노래들(시 120~134)이 수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또 예배로 들어갈 때 이 노래들을 불렀다. 이 노래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형제자매가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바라는 내용이다.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와 순예배에 참여하더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리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예배와 순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만약 쉽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게 된다면 집중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자매는 손뜨개질을 하면 집중이 잘 된다는 것을 깨닫고 손뜨개질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고, 어떤 이는 영상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교를 받아 적는다고 한다. 집중이 안 된다고 아쉬워만 하지 말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자신만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란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렸다면, 신

앙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점검하자. 다른 즐거움이나 성취감, 또는 분위기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이점들이 사라지면서 열정 또한 식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했는지 돌아볼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영적 건강의 위기를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 가게 해줄 수 있다.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고, 온 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누구의 시선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고백했다. 다른

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춤추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

면서 더 깊은 하나님

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더 깊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

기를 소망한다.



한은선 목사
(SN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화해의 기술과 기쁨

결혼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늘 행복한 시간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첫 만남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있다. 이 단계를 지나 친밀을 경험하고, 친밀의 단계에서 시간이 쌓이다 보면, 혹은 익숙해지는 시기가 오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 단계를 성숙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한다면 더 깊은 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원해진다. 오해와 갈등의 단계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부부 친밀도가 깊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기술 중 하나가 ‘화해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가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잘 화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부부 행복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갈등을 건강하게 직면하거나 해결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보이는 건강하지 못한 태도는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친밀한 관계이거나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까운 관계라면 갈등 상황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건드려서 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피 외에도 개인마다 취하는 건강하지 못한 태도는 다양하다.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나타내기도

하며, 수동공격적 패턴을 취하기도 한다. 때때로 화를 내거나 심한 자책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이 축적되어서 오랜 시간 배우자와 교류하지 않는 극단적 단절을 택하기도 한다.

부부관계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패턴과 달리 정말, 어떻게 하든지 화해하고 살아가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부부가 화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을 본다. 부부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 어려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든, 가족생활주기 변화에서 오는 것이든 그 이유는 다양하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부부는 갈등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해변가에 부딪히는 파도가 늘 동일하지 않듯이 부부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형태와 강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어려움 속에서도 친밀감을 누리며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화해의 기술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단호하게 구분하는 성향이라면 포용적인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부부가 화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부싸움을 할 때는 미움과 실망이 가득하겠지만, 배우자가 ‘항상,

늘 실망스럽다’라는 극단적인 확정은 피해야 한다. 배우자가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용하게 된다면 부부 화해의 장으로 나가는 것이 한결 수월할 것이다. 화해의 기술이 미숙하면 문제의 본질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 갈등이 생기면 화를 내고 갈등의 자리를 떠나버린다. 혼자서 삭히거나, 혼자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슬며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때로는 신앙적인 행위로 도망치는 경우도 있다. 화해의 장으로 나가지 않고, 싸움과 갈등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꽂고 혼자 방에 들어가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한동안 갖는 부부도 있는 것 같다. 기도하는 시간, 혹은 혼자만의 침묵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등에 대한 속 깊은 대화 없이 단순히 “미안하다”는 형식적인 말을 흘리면서 갈등을 눈감아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부는 불편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화해의 자리까지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언덕을 걸어가는 것 같은 심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 때로는 희생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이 연

상될 만큼 힘든 순간이기도 하다.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장 치열한 싸움을 경험한 이후 화해를 목표로 하는 화해의 자리로 가는 것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헌신과 겸손이 필요하다. 그래도 부부는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화해의 자리에서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이해해”라고 말하면서 화해라는 관계적 함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도움 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화해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반석을 제공하는 의미다. 변함없는 ‘사랑의 반석’을 확보한 다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면 ‘화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황국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미디어에 나타난 기독교

‘오징어게임’의 진짜 반기독교적인 요소



*주의: 글에 드라마 내용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 아들이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노인 ‘오일남’의 성대모사를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리코더로 이 드라마의 OST를 연주할 정도였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이미 시청을 마친 친구들이 적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만큼 틱톡과 유튜브에 올라온 유명한 장면들을 돌려봤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 드라마는 단순히 감상하고 지나가는 콘텐츠를 뛰어넘어서 놀이 문화와 사회현상으로까지 그 몸집을 키우고 있다. 아무리 우산으로 막으

려 해도 몰아치는 폭우에는 몸을 피할 수 없듯이, 이 드라마에 대한 세상의 엄청난 반응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흥행 요소는 단순하다. 소재로 채택된 ‘오징어게임’,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등은 누구에게는 익숙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누구에게는 생소하지만 흥미롭게 그려진다. 456명의 참가자들이 1인당 1억 원의 목숨값을 걸고 최후 승리자이자 생존자 1인에게 전부 몰아주는 ‘목숨 건 승부’라는 세팅 또한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큰돈이 당장 절실한 참가자들은 “여기랑 바깥이랑 뭐가 다르냐. 밖에서 죽나 여기서 죽나 다를 게 없다”고 푸념하는데 냉혹한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결국 흥미로운 소재 선택과 세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딜레마를 재미있게 풍자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통렬히 비판하는 작가의 탁월함에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열광하는 무리에 마음 놓고 합류하기 어렵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어김없이 기독교인들을 형편 없이 묘사하는데 그 정도가 과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오징어게임은 반기독교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목숨 건 게임이 계속 이어지는 중에 한 신앙심 좋은 참가자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다소 광

적인 모습에 다들 눈살을 찌푸리고 마는 정도지만, 유독 한 소녀가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욕설을 섞어가며 비아냥거린다. 목사였던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고, 결국 그 아버지를 살해한 소녀의 딱한 사연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최종 우승자가 된 주인공이 어느 비 오는 추운 겨울 눈이 가려진 채 길거리에 버려진다. 만신창이가 된 주인공의 눈가리개를 풀어준 사람이 정신 차린 주인공에게 건넨 첫마디가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였다.

이처럼 많은 콘텐츠에서 유독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긍정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여전히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신앙의 실천’은 타 종교인에 비해 기독교인들이 훨씬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둘째,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독교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청렴, 겸손, 섬김, 나눔, 생명 존중과 같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차원 높은 윤리적 기준을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유통기한이 임박했음을 누구나 직감하고 있다.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행불일치’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언행일치’가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한다. 그것이 ‘대상에 대한 이해’이다. 길에 버려져 신음하는 주인공을 발견한 전도자의 첫마디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괜찮으세요?”였어야 한다. 길 가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말이다. 대상의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하면 전도자에게는 자기만족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는 또 다른 강압이자 폭력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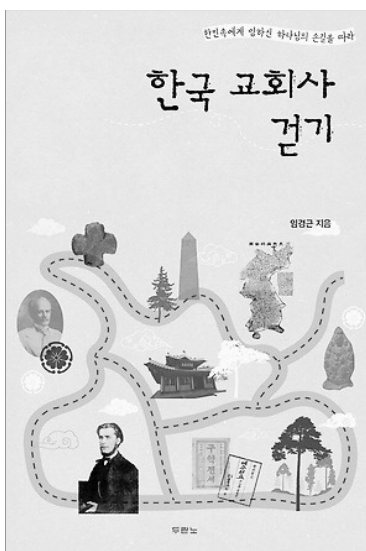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반기독교적’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다름 아닌 ‘생명’에 대한 관점이다. 아무리 지옥 같은 현대 사회를 풍자했다고는 해도 일확천금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의 목숨을 끊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의 장기를 파헤치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미 넷플릭스를 비롯한 콘텐츠 플랫폼들의 무한경쟁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콘텐츠들이 흥행을 위해서라면 더 경쟁적으로 상상과 상식의 초월을 불사할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지 모르지만, 진리를 담아 사람을 살리는 콘텐츠가 CGNTV 기독 OT ‘풍당’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그 날을 꿈꾸며 간절히 기도한다.



임영광 목사
(CGNTV 콘텐츠제작본부장)

두란노 신간

역사에 그 답이 있다!



〈한국 교회사 건기〉
임영근 저 | 두란노 | 23,000원

생한 역사를 알고,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며, 미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부정적인 종교인식, 교회의 타락 등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과거 어려운 상황에도 영적 대부흥을 이루고, 민족의 등불이 되고, 백성을 품고 보살피던 교회의 모습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역사에 그 답이 있다.

책 〈한국 교회사 건기〉는 과거 한국 교회 이야기를 담아두었다. 구한말 복음이 전해진 순간부터 평양대부흥,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한국 교회 이야기까지 쉬운 언어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과거 한국 교회가 나라와 백성을 섬겼던 모습, 신사참배라는 뼈아픈 역사, 교회의 분열, 교회의 성장 등 본받아야 할 모습부터 부끄러운 모습까지 낱알이 기록해두었다. 그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미래 한국 교회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책 서문에 “역사를 알면 현재를 직시할 수 있고, 더 밝고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적었다. 책 〈한국 교회사 건기〉를 읽으면 한국 교회의 생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비아를 울린 故 김수석 선교사



순교자의 삶을 가계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2015년 7월 감비아에서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하고 순교한 故 김수석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을 받을 때 남긴 유서다.

대전신학대학교 신학과 11학번인 김수석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군 생활을 할 때 적은 월급을 꼬박 꼬박 저축해서 선교에 필요한 비용을 모았다. 복학하기 전에 감비아 단기선교를 결심한 김수석 선교사는 5월 5일 유서를 남기고 감비아로 떠났다. 그리고 7월 11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김수석 선교사는 유치원 사역을 마치고 단기사역팀과 현지인 학생들과 바닷가에

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현지인 소녀 두 명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 들었다. 현지인 소녀 한 명을 구하고 그만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故 김수석 선교사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감비아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한 선교사는 “오랜 시간 사역해도 마음을 열지 않던 이슬람 주민들이 김수석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면서 故 김수석 선교사를 추모했다. 하나님 품에 안긴 김수석 선교사는 유서에서 선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자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나의 순교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중요성이, 선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자각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웃'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삼성교회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교회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최봉순 목사입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삼성교회 교회학교는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시각장애인도 함께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사 구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Acts29팀(이하 Acts29팀) 청년들의 섬김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매년 여름성경학교는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Acts29팀의 큰 장점은 삼성교회 교회학교 청소년과 연령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이 저조한 것에 비해 신앙으로 잘 다듬어진 젊은이들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지도하는 일이 중소교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Acts29팀 소속 청년들이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Acts29팀 청년들의 도움으로 변화된 삼성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삼성교회 교회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Acts29팀이 온라인으로 삼성교회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다.

남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삼성교회에 왔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서적으로 산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Acts29팀과 6년 정도 시간을 함께하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반항적인 아이를 Acts29팀의 든든한 남자 청년들이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까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

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에게도 Acts29팀의 사역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자 청년들의 언니 같은 자상한 보살핌 덕분에 가정에서도 반기 힘든 사랑을 듬뿍 받고 안정적인 정서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Acts29팀에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삼성교회 교회학교를 잊지 않고 동역해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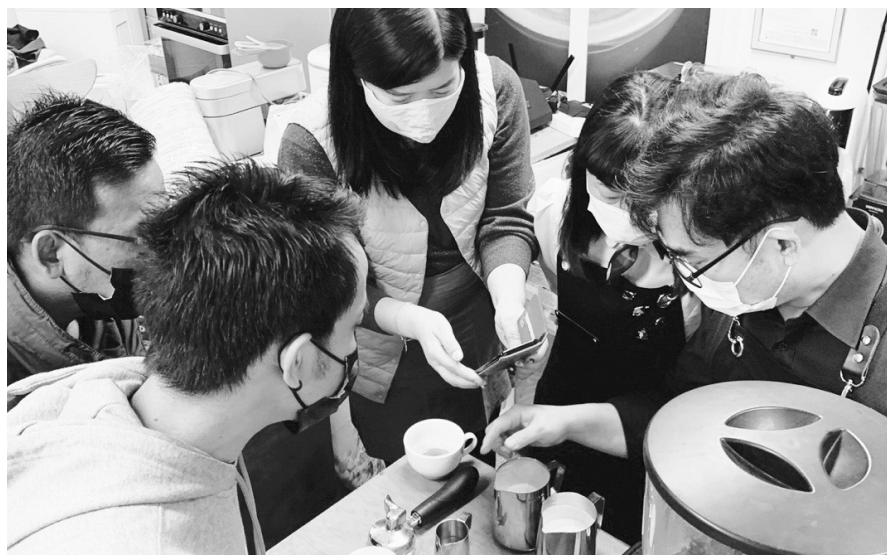
거리두기 때문에 지난해 봄부터 Acts29팀 사역이 중단되었었는데 올해 봄 Acts29팀이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작은 교회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온라인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성교회 교회학교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Acts29팀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회학교 사역이 시작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속히 대면예배로 전환되어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cts29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복음화율이 저조하고,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사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학업과 앞날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교회를 기억하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려 섬기는 청년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뭇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2)고 말씀하셨습니다. Acts29팀원들의 수고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최봉순 목사(삼성교회)

 **코로나19, '이주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안산 스타트리협동조합

8월 중순 바리스타 수업을 들으러 왔던 한 이주민 형제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되어서 치료센터에서 10여 일을 보냈다. 치료센터를 퇴소하고 보니 몸무게가 6kg 빠졌다. 그토록 바라던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싶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내 마음에 불처럼 번졌다. 치료센터를 나와서도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 충분히 쉬려고 마음먹었는데 무엇을 해도 마음이 스타트리협동조합에 가 있어서 9월 7일부터 다시 스타트리협동조합에 나갔다. 스타트리협동조합은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바리스타, 제과 제빵, 창업 기술 교육, 행정지원사무, 한국어수업 등을 하면서 전도하는 곳이다. 다시 또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나로 인해 이주민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다. 앞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스위로 삼촌이 스타트리협동조합을 찾아왔다. 안부를 묻고 회비 2만 원을 주시고 가셨다. 시스위로 삼촌은 스타트리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인도네시아 무슬림 형제다.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한 이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



안산 스타트리협동조합에서는 바리스타 교육과 다양한 강의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시스위로 삼촌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나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인 것 같다”고 한다. 시스위로 삼촌은 아내와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해주겠다고 기도를 부탁했다.

추석 연휴에는 바리스타 수업과 한국어 교실 학생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 같이

송편을 먹기로 한 소자와 크리스만이 큰 이삿짐 가방을 들고 왔다. 인천에서 하는 일이 맞지 않는다면 광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안산 언저리에서 일을 구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멀리서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얼마 뒤에 광주에서 구한 일도 맞지 않아서 한 명은 원주로, 한 명은 김해로 갔다고 연락이 왔다. 통영

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광주로, 또 광주에서 원주와 김해로 옮겨 다니는 노동자의 삶이 안쓰럽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는 형제들이라 그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지금 소자는 인도네시아예배에 줌(Zoom)으로 잘 참석하고 있다.

이주민 친구들을 사랑하는 여러 손길이 계속 모이고 있다. 관악금천공동체 성도님들이 이주민 형제자매들의 멘토가 되어 주셨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신앙생활에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고 직접적인 도움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한국인을 위한 재봉교실도 열었다. FA 단기선교사 자매, 여호수아 공동체 팀장, 인도네시아 봉사자 등 여러 손길이 모였다.

10월 2일부터 바리스타 5기 교육을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인 6명, 인도 선교사님 1명 총 7명이 모였다. 당진에서, 화성에서, 발안에서, 인천에서 모이는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차고 넘치게 주셔서 감사하다. 스타트리협동조합에서 이주민 친구들이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열려 복음에 반응하면 정말 좋겠다.

/ 이경원 선교사(스타트리협동조합)

코로나19, '섬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S브릿지공동체 구례 마산동부교회 아웃리치

지난 10월 8~11일까지 전남 구례 마산리에 있는 마산동부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지난 7월 정해졌다. 당시만 해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2천 명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던 시기였다. 아웃리치 팀장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런 시기에 왜 먼 곳에 가서 벽화를 그려야만 할까요?'였다. 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질문만 하고 머뭇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7월에 예정되어 있던 아웃리치 일정이 8월로 연기되었다. 교회에서는 모든 아웃리치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우리팀은 아웃리치를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내 스스로 회의적인 마음과 의심이 있어서인지 팀원들이 모이지 않았고, 함께 하려던 팀원들도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을 보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부르시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섬기기로 한 마산동부교회를 위해, 팀원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 마산동부교회



S브릿지공동체 아웃리치팀이 구례 마산동부교회에서 성경학교와 벽화그리기를 했다.

차세대들과 성도님들, 우리 팀원들이 1:1 매칭 기도를 하면서 아웃리치 준비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9월이었다.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온라인 모임에 마산동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초대했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계획했던 벽화그리기 사역이 축소되고, 차세대 사역에 비중이 실리기 시작했다. 아웃

리치 2주 전에야 사역의 세부사항과 역할이 정해졌다. 그러나 걱정이나 염려는 없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사 55:8)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일하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가 80%, 인간의 지혜와 노력 20%가 이번 아웃리치를 가능하게 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 20%조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3박4일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출발하기 전 모든 팀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정인원을 지키기 위해서 1박2일 혹은 2박3일 일정으로 나눠서 릴레이 사역을 했다. 숙소도 4인 1실 사용 가능한 펜션에서 머물렀다. 식사도 개별적으로 다른 식당, 다른 시간에 해결했다. 그날의 일정이 끝나고 각자 숙소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했다. 그럼에도 은혜로운 아웃리치였다. 그리 넓지 않았던 교회 공간에 천로역정 부스 5개를 설치해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천로역정 지도를 들고 진지하고 재미있게 참여해줬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팀원들도 역할의 경계를 떠나 서로를 도왔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나 예수님께서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본 하인이 된 것 같았다. 은혜와 기적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김미순 자매(S브릿지공동체)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기 위한 첫걸음

나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영업사원의 분주함을 느끼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면서도 충족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만족감, 부부관계의 소원함을 느끼고 있었다. 날마다 멀어져 가는듯한 청소년기 자녀들을 보면서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로 가족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보내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회복사역팀의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이하 파워임팩트)를 접했다. 파워임팩트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향하는 방법을 깨닫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였다.

삶에서 인간관계가 행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가진 많은 상처는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내가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소중한 존재로 대우하는 마음과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배웠다.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강의가 큰 도전이 됐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몽골 선교사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를 수료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가까워진 최창윤 성도(성북공동체) 가족.

았다.

남녀의 차이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배운 것이 많았다. 청소년기 자녀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소울메이트(Soul Mate)'가 필요하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격하게 공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무슨 고민이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는 아빠가 되고 싶어졌다.

아빠가 세상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으로 밝고 유쾌하면서도 신앙의 원칙에서는 엄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자녀들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것이다. 인간은 감정을 혼자 처리할 수 없고, 타인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았기에 우리 가족을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더 좋은 남편,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제는 아내에게 "당신이 내 편이라서 고마워",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많이 힘들지"라는 말 한마디를 건낼 수 있게 됐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가족관계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당신에게 내가 소중한가요?", "당신에게 내가 의지해도 되나요?"

부부간의 모든 대화를 이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삶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여정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의 가족이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체감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파워임팩트를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최창윤 성도(성북공동체)

“어린이 같은 장로 되겠습니다”

장로사관학교 종강, 12월 4일 장로장립식

피택장로 47명이 2021 장로사관학교 종강예배에서 “어린이 같은 장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0월 16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장로사관학교 종강예배를 드렸다. 임희창 장로의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훈련생 간증, 온누리성가사 찬양팀 The Blessing의 특순, 수료증 수여, 우수 훈련생 시상, 수련회 발대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예수님은 어린이 같은 분”이라며 “예수님처럼 어린이 같은 리더십을 가진 장로들이 되어달라”고 권면했다.

임희창 장로(장로사관학교담당)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가 되어달라”고 축복했다. 김영욱 피택장로(성북공동체)는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장로로 부르셨는지를 깨달았



2021 장로사관학교 종강예배.

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 삼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

2021 장로사관학교에서는 ‘사도행전적 교회’, ‘온누리교회와 Acts 29’ 등을 주제로 강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 온누리교회 행전 30년>,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등의 독후감 쓰기, 캠퍼스, 사역지 탐방, 수련회 등이 이어졌다. 장로고시를 통과한 피택장로들은 12월 4일 장로장립식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로 장립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성경암송대회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 킹’

총상금 3,000만 원, 11월 1일부터 참가자 모집

CGNTV가 성경암송대회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 킹’ 참가자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집한다. CGNTV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경암송대회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 킹’은 성경 암송과 퀴즈를 겨루는 대회다. 성경 암송 구절과 퀴즈는 기독교 OTT 풍당 ‘톨레레게’ 전편에서 발췌한다. 크리스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차 예선(톨

레레게 1~47편), 연령별 예선(톨레레게 1~60편), 2월 연령별 본선(톨레레게 전편), 3월 결선(톨레레게 전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상금은 3천만 원이다.

참가자들은 톨레레게 전편을 반복 수강하고, CGNTV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톨레레게 성경암송 게임으로 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 김영선 기자

하나님과, 동역자와, 이웃과 함께

‘사회선교 온라인 축제’ ... 25개 사역팀 221명 참석

사회선교본부가 ‘사회선교 온라인 축제’를 지난 10월 16일(토) 줌(Zoom)으로 개최했다. 사회선교본부 소속 25개 사역팀 리더십 및 사역자, 봉사자 221명이 참석했다. 사회선교 온라인 축제는 대표기도, 말씀, 사역팀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기훈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를

주제로 “모든 봉사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사회선교를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백종신 장로(새사람사역팀)는 “오랜만에 다른 사역팀 리더십들을 만나서 반가웠고,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했다”고 했다.

남양주 대청 연애 세미나 ‘연애의 발견’

남양주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다윗공동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연애 세미나 ‘연애의 발견’을 10월 31일 오후 2시 남양주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개최한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연애 세미나 ‘연애의 발견’에서는 김숙경 소장(두란노 결혼예비학교 강사, 사랑연구소 소장)이 ‘연애의 발견’ (창 1:27)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6348-9340

사이닝 글로리 참가자 모집

사이닝 글로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사이닝 글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의: 02-3215-3744

경배와찬양 ‘7000학교’ 훈련생 모집

10월 28~31일 온라인 진행, 홈페이지 참가 신청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이하 경배와찬양)에서 2021 ‘새 예루살렘’을 향한 ‘7000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썩 쏘여 주시옵소서’ (창 8:20)를 주제로 온라인(Webex)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동시통역한다. 훈련비는 자율 헌금으로 대신한다. 참가신청은 경배와찬양 홈페이지(www

.allenationen.org)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7000School@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배와찬양은 1987년 교회의 예배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 하스데반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초교파적 선교단체다. 국내외 개척지에서 1년에 두 번 경배와찬양학교 훈련이 진행된다.

문의: 02-796-9700

하랑다문화센터 봉사자 모집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에서 하랑다문화센터 봉사자(교사)를 모집한다. 분야는 언어상담(공감, 경청, 수용), 치료(미술, 음악, 연극, 독서), 감정코칭, REBT(인지행동) 치료,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다. 심리상담 교사는 월 1회(토, 주일 택일),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는 주 1~3회

(수, 토, 주일 택일) 봉사하면 된다.

하랑다문화센터는 포천 일대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어린이들의 예배공동체다. 8개 국적 15가정, 26명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다문화사역팀이 섬기고 있다.

문의: 010-9129-1476

주주간다 한국대사관 팔로리나 난민촌 지원

가정용 손 씻기 기구 12,100개 기증

주주간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NGO 더멋진세상이 섬기고 있는 팔로리나 난민촌에 가정용 손 씻기 기구 12,100개를 기증했다. 지난 10월 5일 손씻기 기구 전달식이 있었다. 하병규 대사(주주간다 대사관), 데이비드 왕위 총괄(지역 난민행정 사무소), 정봉진 선교사 등이 참석했다.

데이비드 왕위 총괄(지역 난민행정 사무소)은 “팔로리나 난민촌을 섬겨주는 한국대사관과 NGO 더멋진세상,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우간다 북부 팔로리나 난민촌과 부두리 난민촌에서 남수단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맞춤 전도전략 세미나’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 유튜브 라이브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본부와 (사)복음의전함이 11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코로나 시대의 맞춤 전도전략 세미나’를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도 전략’, ‘미디어 전도의 실제’, ‘New 전도 플랫폼 소개’를 주제로 여성민 목사(온누리교회 전도사역

본부장), 고정민 이사장(복음의전함)이 강의한다.

교회 전도 담당자(목회자, 구역장, 전도팀 등), 선교팀 및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3만 원이다. 11월 5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강남A 안연숙
김태현 안정미
안현남 유 리
이도은 이상봉
정해정 신재순

서초A 민홍기
정지연 과천의왕
조영상 김소연
홍영표 박 민

이향란 이경연
장혜진 정혜진
분당B 서초D
백진영 박성민
윤희진 송파A
김동진 서초C

명혜리 박경임
박창현 이경나
임효리 황의란
염승훈 양재
강윤정 김영미
김해진 문종국
박상훈 박창수

복재범 이영선
이제훈 이혜경
허윤제 푸른누리
강우석

야마가타 기 · 도 · 제 · 목

- 10월 25일(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이 성취되는 러브소나타가 되기를
- 10월 26일(화)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 10월 27일(수) CEO포럼과 러브소나타를 통해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넘쳐나길
- 10월 28일(목) 러브소나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 함양 광월교회에서 온 편지



/ 최성봉 목사(함양 광월교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함양 광월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성봉 목사입니다. 광월교회는 120여 가구 주민 200여 명이 아침저녁으로 일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삶든 좋든 매일 예배당 앞을 지나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8~11일 온누리교회 S브릿지공동체 아웃리치팀이 교회 벽화를 그려줬습니다. 올해 여름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교회 도색과 조명등을 교체해주셨고, 이번에 S브릿지공동체가 예쁜 벽화를 그려줘서 교회 외관 공사가 완결되었습니다. 낡고 밋밋했던 광월교회가 환하고 아름답게 변모했습니다. 모두 온누리교회 덕분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벽화작업을 하는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골 교회의 소망이 보였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는데 전광석화처럼 작업해주셨습니다. 새롭게 변모한 벽화를 보면서 가슴속 깊이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도 교회가 환해졌다면서 좋아하십니다.

이번 아웃리치가 우리 교회의 주요 사역인 함양어울림 청소년 합창단 연주회와 겹쳐서

많이 신경 쓰지 못했는데도 도리어 S브릿지공동체 봉사팀에서 벽화작업 하는 인력을 빼서 합창단 스태프로 섬겨주셨습니다. 덕분에 30명이나 되는 합창단을 잘 인솔해서 무사히 연주회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광월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마을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도록 끝까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세대의 신앙을 키우는 어울림함양 청소년 합창단을 잘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배당 건축(예배당 50평, 교육관 50평)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둘째, 어울림함양 청소년 합창단원들이 모두 탈 수 있는 차량(35인승 이상)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과 S브릿지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의복이 해지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월교회도 늘 새로운 모습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누리교회에 감사를 전합니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끼에, 프영 선교사(라오스)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쁜 일

코로나19 확산세가 통행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빠르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학교’를 비롯해서 교회에서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가정방문을 계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 없는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버림받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방문한 가정의 할머니께서 저희가 찾아와 함께 기도해준 것이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와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음을 봅니다.

‘생명의 학교’와 ‘청소년 교도소 One Class One School’ 사역이 온라인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담당 사역자들의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교도소 내 영어교실은 타 지역 청소년 교도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쁜 일은 이 일을 진행하는 현지 사역자가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역자의 자신감 없는 태도가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역자 채드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해주시고.

청소년 교도소를 출소한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센터에 새로 형제 두 명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과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교재와 적절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돕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지난 8월 27일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둘째 딸 조엘이가 태어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가장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역병원 두 곳 중에서 한 곳이 폐쇄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자가 없어서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놀라게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둘째 아이를 믿음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찾아온 조엘이 덕분에 기쁩니다. 우리 가족이 영육 간에 강건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 아름다운 동행 수료 소감



/ 이단유 성도(백주년기념교회)

너무 특별한 경험

아름다운 동행의 첫 마음은 특별함 없는 형식처럼 참가하였다. 온전하고 독립된 개체의 성인이라면 스스로 공부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에 무엇인가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했다.

아름다운 동행 첫날, 온라인으로 많은 형제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결핍과 불안정함을 느꼈다. 과연 ‘동행’하며 ‘아름다워진다’는 게 가능할까 의문도 들었다. 그러나 과정이 진행될수록 너무 새롭고 즐거웠다. 다른 가정의 다사다난한 이야기에 웃고 공감했다.

무엇보다 부부 코치 내외분과 조 나눔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눈물을 흘렸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는 가끔 울지만, 평소 잘 웃고 다니는 터라 스스로도 많이 놀랐다. 프로그램 시작부터 따뜻하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라 마음의 빗장이 풀렸던 모양이다. 어딜 가든 들어줄 때가 많은 편이라 집안의 가정사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곳이 없었다. 고민을 이야기하면 스스로에게도, 가족에게도 흠이 될 것 같아 늘 혼자만

의 숙제였다. 그래서 부부 코치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이 내게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다.

아름다운 동행 과정을 지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온하고 따뜻한 파도가 넘실대며 온몸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마음속 파도 한 조각을 누구에게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 동행 과정이 8주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 안에서 또 무엇이 더 쏟아져 나올지 무섭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스스로 불완전함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신 분들께, 도전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에 더욱 힘을 불어 넣어주시며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부드럽고 포근한 햇살 아래서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다가 졸업하는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이었다. 이제 조금 더 성숙하고, 한발 더 나아가는 진짜 어른의 시간으로 채워야겠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하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정윤채 성도(브릿지33+공동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 해외와 지방에서 살다가 2019년 말 다시 서울로 왔다. 오랜만에 나간 양재온누리교회 주일 예배가 예전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교회에 등록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예배를 모두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허전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겼다. 때마침 교회에서 하는 성경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동생의 권유로 일대일제자양육을 신청했다. 일대일제자양육 초반에 양육자님이 내게 물어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당신을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이 질문들에 거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때는 정말 확신이 없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성경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믿었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한 주, 한 주가 지나고 어느덧 일대일제자양육 마지막 날이 되었다. 내 가슴에 무엇인가 꼭 찬 느낌이 들었다. 처음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할 때와 사뭇 달라진 마음이었다. 놀랍고 감사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기도하는 법부터 성경, 성도의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사역, 시험 등을 배웠다. 일대일제자양육이 나를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인도해줬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평평 울기도 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 질문에 “모르겠다”에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됐다.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새벽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진심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매일 말씀을 먹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항상 곁에 두고 들춰보며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장로칼럼

변화하고 있는 일본 교회와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박성호 장로
(러브소나타 담당)

서른한 번째 러브소나타인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10월 27일 가스펠나이트를 시작으로 2일간 일본 야마가타 야마긴현민홀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동시에 올려 퍼진다. 이번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2020년 상반기 예정이었던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19가 올해 들어서도 더욱 더 기승을 부리면서 ‘이런 시국에 과연 러브소나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 혹시 러브소나타를 개최했다가 그 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더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일본 야마가타 협력교회들은 우리들의 우려와는 달랐다.

“더 이상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를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야마가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과 전도가 필요합니다.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일본 열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일본 야마가타 협력교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개최를 요청했다. 일본의 협력교회들이 러브소나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온누리교회와 주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신뢰가 쌓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교회들이 그동안의 러브소나타를 통하여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평양 대부흥회’ 같은 복음의 리바이벌이 일본 땅에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복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진 것도 커다란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일본 교계의 변화가 있다면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교계의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고령화로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나이가 많아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원로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젊은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점차 젊은 성도들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야마가타 교계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 야마가타에서는 야마긴현민홀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리게 되는데 한국 측에서는 최소의 스태프만 참여하고 집회 대부분은 일본 협력교회들이 준비한 점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는 라이브유(Live U)를 활용해 동시 송출 중계를 할 예정이다. 그 준비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CGNTV 임직원과 일본어예배부, 두란노서원 그리고 일본 비전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협력교회들이 추산하는 참석인원은 오프라인 1천 명, 온라인 5백여 명이다. 일본 야마가타에서 러브소나타가 올려 퍼질 때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일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면 큰 힘이 될 것 같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러브소나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러브소나타행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또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전 세계에 러브소나타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러브소나타에 동참하는 사역팀들의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러브소나타와 온누리교회의 선교를 위한 관련된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며 융합선교를 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한일 크리스천들이 함께 손잡고 아시아를 넘어 세상 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권사칼럼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이 세상에 영원불변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사랑’ 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찾아 헤매고,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의 영원한 주제 역시 사랑이다. 성경의 주제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이다. 주일강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 또한 사랑이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그들의 고민은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에는 언어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그러므로 나의 배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배필이 내 사랑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랑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 상대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데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상대를 보는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낚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낚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와 사자가 다퉈니다.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한 말은 ‘난 최선을 다했어!’였습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가 된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만다. 내가 혹시 상대가 먹지도 못할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상대가 느끼지 못할 사랑을 퍼부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글이다.

사랑의 언어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와 섬김’, ‘선물’, ‘피부 접촉’이 그것이다. 사랑의 언어 중에서 첫 번째인 ‘인정하는 말’은 남성들의 사랑의 언어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 남자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가솔린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라면 칭찬은 남편을 움직이는 연료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와 나누는 대화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대부분 여성들의 사랑 언어다. 아무리 바빠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아내는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봉사와 섬김’은 아내와 남편에게 모두 해당하는 언어이다.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도울 때, 밤늦게 일하는 남편을 위해 밤잠을 준비하거나 따뜻한 도시락을 쌀 때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느낀다. ‘선물’과 ‘피부 접촉’은 아내와 남편 누가 먼저 하든, 언제 하든 상관없이 너무 좋은 사랑의 언어다.

사랑은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피면서 원하는 사랑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자와 소가 되어 헤어지면서 “난 최선을 다했어!”라고 허망한 소리를 외치지 말아야 한다.

신앙에세이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러브소나타 담당)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했다. 지난 14년 동안 일본열도에서 총 30번에 걸쳐 러브소나타 전도집회가 개최되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일본 교회들이 연합했고, 2,77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족적 양금에서 오는 감정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사랑하게 하셨다.

지난해 야마가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러브소나타가 열리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

발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기도로 준비한 야마가타 실행위원회와 협력교회는 크게 실망하고 상실감을 경험했다.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 일본 실행위원회 회의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일본의 작은 도시인 야마가타에서 러브소나타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마가타에서 러브소나타를 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협력교회로 신청하고 열심히 러브소나타 준비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러브소나타가 열리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마가타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시간을 연장해주셨구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마가타 러브소나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목사님의 눈물 섞인 호소가 기폭제가 되어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 준비를 했고, 드디어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러브소나타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원생중계로 진행된다.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이라 낯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도로 준비했다. 야마가타 실행위원회와 일본 비전교회, 한국 러브소나타 본부에서는 10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열고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방송 기술과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뜻밖의 수확도 있었다. 야마가타 현지 실행위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온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셨다. 시간과 재정을 내어 일본에 와서 이렇게 많은 일을 섬기고 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일본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앞장서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스태프를 자청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일본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러브소나타를 준비하자고 격려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일본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야마가타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10월 27일과 28일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가 막 오른다.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이다.

지난 14년 동안 러브소나타를 위해 기도하고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박해자를 전도자로 부르시다

스테반 집사 순교 이후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까지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0km, 일주일이나 가야 하는 그 먼 거리를 쫓아가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주도적이었고 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강렬한 빛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가 가장 강력한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박해자마저 전도자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둘째, 바울이 회심할 때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16절).

하나님의 아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렬한 빛과 음성을 듣는 사건으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바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

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고후 4:6).

여러분, 복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합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을 어떻게 생명공학이 증명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이 사건을 어떻게 환경공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취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잘 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취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셋째, 사도 바울 회심 이후 여정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 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 다”(17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이 어디론가 갔습니 다. 그리고 3년 동안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홀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은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주님에게 복음을 직접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취로써 오신 예수님. 역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3년 동안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3년을 보내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18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 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 다”(18~19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 다. 다른 사도들은 아마 만나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아는 바울은 스테반 집사를 죽여 한 사람이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믿는 자를 끌어 오려고 한 핍박자이자 방해자였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과 바리새인에게는 변절자, 성도들에게는 박해자가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 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21~22절).

바울이 유대 여러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기에 정통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가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방 도시입니다. 바나바가 데리러 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 다. 유대 교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순전합니다. 바울을 통해 주어진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이 진리를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1992년 10월 25일 〈국내선교〉라는 온누리교회 국내 선교 월간지 4호에 故 하용조 목사님이 쓴 칼럼이 있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두 강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약과 구약을 맺어주는 다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이다. 구약의 인자(Hessed)와 신약의 사랑(Agape)이 하나요, 구약의 의(Tsedeq)와 신약의 의(Dikaioyne)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자칭 복음적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작금(昨今)의 교회들은 어떠한가? 선교에는 관심이 많으나 세상의 고난과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교회가 많음을 본다. 사랑은 중히 여기되 정의는 애써 편파적이라거나 사

회문제 이전에 개인 구원만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는지, 부유한 압제자들 편에서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본다. 우리는 제자 삼는 복음 전도와 함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용조 목사님도 그 글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지상 위임령이요,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말씀하고 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은 본인의 첫 월급을 세 계선교에 헌금하실 만큼 지상명령에 모든 것을 걸고 계셨지만 실은 대계명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많은 교회들이 첫 번째 계명에는 열심이지만 두 번째 계명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교회도 지상명령인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다. 많은 헌신자들이 있고, ‘2천/1만’ 비전을 따라 매우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계명 ‘사회선교’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의 지적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대계명은 거역할 수 없고, 거역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쌓았던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저하된 것은 이 대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개인 구원에만 신경 쓰다 일어난 현상인지도 모른다.

올해 초 ‘한국 복음주의 교회는 왜 사회선교에 무심할까?’를 주제로 사회선교 세미나가 열렸다. 그 세미나 주제 발표자였던 김희권 교수(숭실대)는 사회선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중생 구원을 맞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규범과 가치에 따라 기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이 열정적인 복음 전도를 하는 열심만큼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고, 그 인식의 바탕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눈과 손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돌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선교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온누리교회는 10년 전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취임하면서 ‘사회선교’를 말씀하셨다. 지금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 25개 팀이 사역하고 있다. 농어촌교회사역, 노숙자 돌봄, 청년부채, 입양 및 위탁, 난민, 탈북민, 다문화사역 등 헤아릴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계명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정의가 이 땅에 강물 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온누리 교회가 개인 복음화를 위해 냈던 열심만큼 사회선교를 위해 열심을 댄다면 좋겠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후원을 통해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태경 장로
(사회선교본부 대표장로)

문의: 02-3215-3434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도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uckland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insaia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요 오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부목사(전임)

◆전도사(파트)

◆사역장로

◆경배와찬양 목회자

◆협동목사

◆사무장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의무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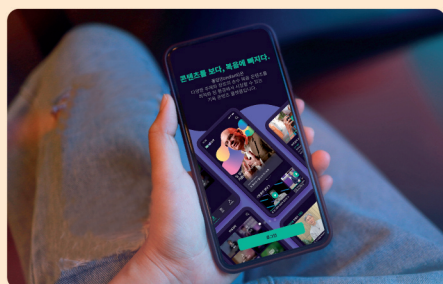
새로운 시대,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



CGNTV
함께!
미디어선교

10월, 11월은 CGNTV 정기후원의 달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CGNTV



풍당(fondant)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 플랫폼
'풍당'으로 신앙생활의 미래를
만납니다.

👥 가입자 7만 명 돌파



달려라! 풍당

소중한 발걸음으로 함께 만든
다음세대 복음 콘텐츠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밝힙니다.

💰 총 모금액 약 1억 7천만 원



비대면 아웃리치

물리적인 선교지 방문을 넘어
온라인 아웃리치로 선교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 이집트, 케냐, 네팔, 프랑스, 브라질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후원계좌 (재)온누리선교재단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

“CGNTV후원이 곧 미디어선교입니다”



신규회원 QR



증액회원 QR